

- 2019 한발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16 - 믿음인가 이해인가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59-67)

점쟁이들이 다른 이들의 미래 혹은 운을 봐준다고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즉, 미래에 일어나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데,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정보대로 자기 자신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해 본다면,
- 천기누설을 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해도, 아래의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자기가 제시하는 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제시한 미래의 정보나 운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해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이르러야한다고 칩시다.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이 있는데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정확한 길인지 알지 못하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길들이
애매해 보이고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다 시도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가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에 대한 약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약도를 받아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 안 가본 길이니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가본 사람이 가 보았다고 하니 가긴 가는데,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가 가야할 길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이미 가본 사람의 약도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1. 믿음은 “반응”입니다.

- A.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반응이자 결과입니다.
- B.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자신의 죄인됨과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C. 선물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 D. 사람의 이해가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 E.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 본연의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F.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15)

-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8-10)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7)

-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33-34)

2.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 A.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 B.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 C.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됩니다.
- D.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 E.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 F.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3.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만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고 누리지게 됩니다.

- A. 미래적 의미: 개인적 종말 혹은 인류적 종말 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뵈옵게 됩니다. 개인적 죽음, 종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 모든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뵈옵게 되는 것입니다.
- B. 현재적 의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절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회복, 원래 창조목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 C.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사셨던 예수님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길을 이미 걸어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분향으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7-10)

4.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걸어가 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로서의 약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 A. 약도를 받아든 우리는 그 약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B.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의 약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 C. 믿음의 세계는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선 믿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 D. 예수께서 가 보셨다고 하니, 믿고 걸어가 보니까 뒤돌아보며 그제서야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 A.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 B.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 C. 자신의 것, 혹은 다른 이들의 것에 대해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D. “일단 기도해 보자!”는 말이 인정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견도록
인도하십니다.

- A.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 B.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 C.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인간적 이성과 이해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 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